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토론회” 개최

—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지난 9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11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희룡 국회의원과 김재균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남편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가져야 할 균형·지역주도·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삭제되고, 수정되어 기본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의 원성을 들었다.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회의(9.30) 및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10.8)가 개최되었으며, 각 지역의 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와 이창용 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의 균특법 개정대체법안 제인과 함께 8명의 토론자들이 균특법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충청 광역경제권 심포지엄” 개최

- 대전·충북·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대전·충북·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11월 19일,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충청권이 당면하고 있는 광역권의 다양한 과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초광역개발권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내륙문제와 충청권 광역경제권 출범과 여건 모색, 실용정부 지역정책과 연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권태호(세명대교수), 김진석(전북발전연구원 박사), 양우석(홍익대교수), 이영훈(한서대교수), 임형선(광주발전연구원실장), 채성주(충북개발연구원 박사) 등 지역안팎의 전문가들이 충청 광역경제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광역경제권 추진에 있어서의 방안 모색이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 “2008년도 제4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 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2008년도 제4차 “지역경제연구회”가 12월 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05년부터 대전·충남지역의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현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지역경제연구회는 충남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회 조직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본 연구회는 올해 들어 4번째로 개최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관련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주제는 한밭대학교 조복현 교수의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올 하반기 들어 나라 안팎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실태와 향후 대처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제2주제는 목원대학교 정재호 교수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여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실용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우려와 함께 국내시장악화 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연구회 회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대전충남지역의 지역경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문화관광분과포럼: 충청권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충청남도 · 충남관광협회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주최



2008. 12. 4(목), 문화관광분과포럼이 “충청권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세미나”라는 주제 아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충청남도가 2010년 충청방문의 해와 2010년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문화관광분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2010 충청 방문의 해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한 양광호 공주영상대학 교수의 “2010 충청 방문의 해 사업전략 및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와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의 “2010 대백제전의 세계화의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 두 가지 주제발표에 대하여 건양대학교 전명숙 교수, 우송정보대학 장인식 교수, 배재대학교 박근수 교수, 충청남도 문화산업과 고준근 사무관이 중심이 되어 2010 충청 방문의 해 및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점들과 지역민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충남을 알리기 위한 방안을 교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